

GC녹십자, 혈액제제 '알리글로'로 미국 시장 공략 본격화

히알루론산 필러 등 수출 다각화
美 시장서 매년 50% 성장률 기대
美 수출 넘어 중서 성장기반 마련

'알리글로'를 앞세워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 입성하고 있는 GC그룹이 혈액제제 사업을 비롯해 히알루론산 필러, 진단 사업 등으로 해외 수출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

21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난 8일 자사가 개발한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초도 물량 선적을 완료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국내 혈액제제의 미국 시장 진입은 처음이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GC녹십자는 면역글로불린 정제 공정에 GC녹십자의 독자 기술인 '양이온 교환 색채 분석법(CEX 크로마토그래피)'을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혈전색전증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혈액응고인자 등 불순물을 제거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알리글로 특징이다.

GC녹십자가 출하한 알리글로는 미국 내 물류 창고와 유통 업체를 거쳐 전



GC녹십자 본사 전경.

/GC그룹

문 약국으로 전달되는데, GC녹십자는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알리글로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후 실질적인 알리글로 처방을 위한 단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GC녹십자는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미국 내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 알리글로 처방집 등재 계약을 맺고 전문 약국을 확보하는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GC녹십자는 올해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알리글로가 5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알리글로가 미국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GC그룹은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도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녹십자홀딩스는 지난 17일 홍콩법인 녹십자HK홀딩스의 지분 전량을 중국 CR제약그룹의 자회사 CR 보야 바이오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녹십자홀딩스에 따르면 해당 계약의 매각 금액은 약 3500억원이다.

이와 함께 녹십자홀딩스는 CR제약그룹과 GC녹십자, GC녹십자웰빙 등의 주요 제품에 대해 중국 내 판매를 책임지는 별도의 유통계약도 맺었다. 중국에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CR제약그룹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C녹십자는

국내 오창공장에서 생산하는 혈액제제 '알부민'과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에프'를 CR제약그룹을 통해 유통하게 된다. 혈액제제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중 하나인 면역글로불린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알부민은 중국으로 수출해 혈액제제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GC녹십자웰빙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에 속도를 낸다. CR제약그룹이 중국에서 GC녹십자웰빙의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 유통을 책임지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GC녹십자웰빙은 지난 1월에도 국내 기업인 유영제약과 협력해 중국 필러 시장 공략을 준비해 왔다.

GC녹십자웰빙과 유영제약은 중국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부터 생산, 판매 및 마케팅까지 협업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영제약에서 제조한 히알루론산 필러는 지난 2023년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GC녹십자웰빙은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중국 '안취거린커약품 판매유한공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오는 2030년 총 400억원 대의 히알루론산 필러 판매를 목표로 하는 등 중국 필러 시

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울러 GC그룹은 베트남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GC녹십자의료재단과 베트남 페니카그룹은 베트남 최초의 유전자·암 전문 종합 진단·판독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양자간 주주간계약서(SHA)를 체결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이 오랜 노하우를 활용해 베트남 현지에서 진단검사실을 구축하고, 종합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GC녹십자아이메드가 베트남 현지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를 세우는 것이 사업 골자다. 페니카그룹은 이번 사업에서 베트남 현지 영업과 마케팅을 맡는다.

페니카는 산업, 기술, 교육,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의 국내외 30여 계열사를 갖춘 베트남 대표 기업 중 하나다. 페니카 그룹은 베트남 최초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을 선보여 잘 알려진 페니카-X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GC그룹은 베트남에서의 성장 기반이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진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美 바이오텍에 384억 올리고핵산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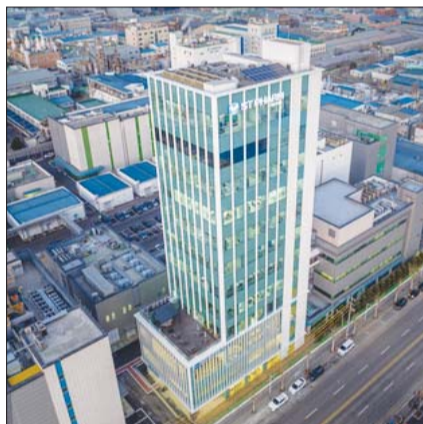
에스티팜

올리고핵산 상업화 공급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동아쏘시오그룹의 계열사 에스티팜은 지난 19일 미국 소재 바이오텍과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의 상업화 물량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에스티팜에 따르면, 해당 계약 규모는 384억원으로, 지난 2023년 에스티팜이 기록한 매출액 285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스티팜은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은 거래 상대방의 요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며 "이번 계약 금액은 계약 기간이 상이한 3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전경. /동아쏘시오홀딩스

의 동일 품목 공급 계약 건을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티팜은 비밀유지 거래에 대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거래 상대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에스티팜은 현재 올리고핵산 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에스티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RNA 기반 신약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체 캡핑 기술과 LNP 약물 전달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에스티팜이 주력하고 있는 CDMO 제품은 RNA 기반 약물에 사용하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다. 최근 유전자 치료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약물전달 기술이 발달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에스티팜은 원료의약품 CDMO 사업에서 원료의약품 공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K-뷰티 종합정보 한눈에"

기업 공식 홈페이지 선보여
화장품 산업 지원정보 등 공개

CJ올리브영이 K뷰티 시장 전반을 다루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CJ올리브영은 화장품 업계 중소기업과 뷰티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산업 정보를 모은 기업 공식 홈페이지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번 공식 홈페이지를 'K뷰티 종합 정보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홈페이지는 화장품 산업 지원정보, 올리브영의 지속가능경영 정보, 올리브영 소식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지원정보' 항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여러 곳에 분산된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전국 250여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3000건 이상의 화장품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사업화, 투자·용자, R&D, 판로·해외 진출 등 주제별로 소개한다.

'지속가능경영'에서는 올리브영이 추진하는 협력사 지원사업과 소통 프로그램 등 상생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소개'에는 숫자로 보는 CJ올리브영, CEO 메시지 등을 통해 기업 정보를 설명하고, 올리브영의 소식을 알리는 뉴스룸도 마련했다.

올리브영은 글로벌 사업 파트너와 소비자를 고려해 연내 영문과 일문으로도 자료를 제공하고, 국내외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블랙야크 키즈

여아용 원피스 3종 선보

유아용 패션 브랜드 '블랙야크 키즈'는 여름맞이 여아용 원피스 3종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블랙야크 키즈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한 원피스 제품군은 우븐 스트레치, 잠재권축사 원단 등 시원한 촉감을 주는 소재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캐주얼한 디자인과 경쾌한 느낌을 더하는 색상을 적용해 평상시에는 물론 여행, 나들이에도 입을 수 있어 여름 방향을 맞춘 여아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블랙야크 측의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여름 특별할인 행사

'쿨썸머 스토브 페스타' 진행

스마일게이트가 여름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스마일게이트의 게임 플랫폼 '스토브'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쿨스타: 쿨썸머 스토브 페스타'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쿨스타: 쿨썸머 스토브 페스타'는 여름 인기 장르 게임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행사로 참가자는 호러, 미스터리, 무빙, 슈팅, 액션 5개 카테고리에 100개가 넘는

게임을 만나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워킹데드: 텔테일 디피니티브 시리즈, 스테퍼 케이스, 킬 더 크로우, 이프선셋 등 장르별 상위 인기 순위를 기록하는 게임들이 이에 포함됐다.

이용자들은 대상 이벤트 기간 동안 무제한 발급하는 30% 할인 쿠폰을 적용해 해당 게임들을 구입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한 개의 ID 당 3장 발급되는 700원 중복 할인 쿠폰을 통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안재선 기자

넥슨, '메이플스토리M' 신규 캐릭터 공개

'에릴 라이트' 세계관·스킬 등 공개

넥슨이 '메이플스토리M'의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인다.

넥슨은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메이플스토리M'의 라이브 방송 'SHINE, 두 번째 이야기'를 열고, 신규 캐릭터 '에릴 라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넥슨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에는 넥슨 김현승 디렉터와 이사라 기획팀장이 출연해 두 번째 캐릭터 '에릴 라이트'의 세계관, 주요 스킬, '아칸'과의 관계성

등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에릴 라이트'는 은빛 수호 기사단 대장 중 하나로, 빛의 기동 과편을 활용해 만들어진 창 '그람'을 주 무기로 사용한다. 은빛 수호 기사단의 총대장인 '아칸'의 추천으로 은빛 수호 기사단에 입단하게 되며, 이후 메이플 월드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는 설정이다.

아울러 해당 캐릭터는 빛의 파수병, 광휘의 파수병, 파수대장 등을 활용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